

인물 소개 :

돈 조반니 : 1년 전, 의문의 꿈 속 여인을 찾기 위해 사랑을 찾아 다니는 쓸쓸한 남자

돈나 안나 : 아버지의 죽음으로 조반니에게 복수를 꿈꾸는 여인

기사장 : 돈나안나의 아버지

돈 오타비오 : 안나의 약혼자. 안나의 복수를 돕는 남자

돈나 엘비라 : 16세 어렸을 적, 조반니와 열렬한 사랑을 나누고 그를 잊지 못해 조반니와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찾아온 여인

체를리나 : 마제토의 약혼자, 영문도 모르고 조반니와 당황스러운 만남을 겪은 여인.

마제토 : 체를리나의 약혼자. 약혼인 체를리나를 농락한 조반니에게 복수를 다짐함

*빛 없는 흑백의 꿈속에서
손 맞닿은 여인 있으니,
'나를 잊지 말아요, 우리 함께
이 생애 끝까지 발 맞춰 걸어요'
그는 세상이 멈춘 듯한 전을 속에서 깨어나
은 세상이 그 여인이나, 다른 사랑은 쳐다보지 않으니
누구나 붙잡고 '그 여인인가' 들쳐볼 뿐이었다.*

1년 후 ...

S#돈나 안나의 집 앞

안나 [돈 조반니의 등을 붙잡고]
나를 죽이지 않고는
절대로 도망치지 못할 거예요.

조반니 [여전히 얼굴을 가리고]
잠깐 확인한 것뿐이야! 아무 짓도 하지 않았잖아!

안나
누구든지 도와줘요. 이 악당을 잡아줘요.

기사장 [칼과 등잔을 들고 등장]
내 딸을 놓아주어라. 이 악당아!
[안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는 조반니를 놓아주고
집 안으로 들어간다]
칼을 뽑고 내 칼을 받아라!

조반니

비키시오. 일을 틀어지게 하고싶지 않소.
그저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오.

기사장

그리 쉽게 도망칠 것 같은가?
[칼을 뽑아 조반니를 찌르려한다]

조반니

제발 나 좀 내버려두시오!
[칼을 뽑고 싸우다가 기사장은 치명상을 입는다]

기사장

사람 살려! 찢리고 말았구나!
저 살인자의 칼날이 나를 찢렸다.
악마의 얼굴 절대 잊지 않으리

조반니

아, 어찌 이런 일이!
어쩔 수 없다. 아무도 모를거야.

조반니 퇴장

돈 오타비오, 돈나 안나, 하인들이 등을 들고 등장

안나

[아버지의 시체를 본다]
오, 신이여. 이 무슨 끔찍한 광경
아버지. 나의 아버지. 사랑하는 아버지!
맹세해 주세요.
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아주겠다고!

오타비오

당신의 눈을 두고 맹세하리다.

S#무도회장, 체를리나와 만남

조반니

(사람들이 아주 많군
이 곳에서 나의 진정한 사랑을
찾을 지도 몰라)

체를리나

이 곳에 처음 오셨나봅니다.

조반니

(아, 아름다운 여인이다.
나와 통하는 무언가 있으니
나에게 말을 건 것이겠지)
그렇소. 혹시 그대 나를 본 적이 있는 지

체를리나
낮이 익긴 하나 잘 ...

마제토
[조반니와 체를리나에게 다가오며]
체를리나!

체를리나
제 약혼자 마제토입니다
아, 전 체를리나예요

조반니
(아, 너무 늦은 것인가 이미 약혼자가..
그러나 그 운명의 여인이 맞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)
돈 조반니오.
체를리나, 실례인 줄 알지만 잠시 나와 시간 좀
내주겠소?
둘이 얘기를 나누고 싶소

마제토
그렇지만 나리, 체를리나만 남겨두고 갈 수 없습니다.

조반니
걱정말고 가게나
신께서 돌보시니

마제토
(아, 나의 체를리나
또 바람에 흔들리겠구나)

마제토가 퇴장하는 듯 하다 뒷 쪽에 숨는다.

조반니
[체를리나의 손을 잡으며]
나를 잘 봐요, 그대가 맞소 ?

체를리나
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

조반니
그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
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
우리가 하늘이 준 운명이라면 어떤 것도 방해받지
않는단 말이오!
그대가 맞는 지 확인 하고싶소

체를리나
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..
하지만 저는 그이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

조반니
체를리나! 나는 한낱 결혼 따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오.
그대가 아니라면, 왜 나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오?

체를리나
신의였을 뿐입니다!
말 한 번 잘못 걸어
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

조반니
잠깐 기다리시오!
[도망가려는 체를리나의 팔을 붙잡는다]

마제토
[숨어있던 마제토가 나오며]
나으리!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!

조반니
마제토!
(어쩔 수 없군.
이 아가씨가 나의 여인이라면
하늘이 이렇게까지 일을 망치도록 두지 않겠지
여기 있는 시간도 아깝구나!)
[도망치는 조반니]

마제토
체를리나, 괜찮소?
저런 바람둥이 같은 놈
놀란 그대 마음, 복수로 위로해주리다.

마제토와 체를리나 퇴장

조반니가 '진정한 사랑'을 언급하며 온 여자들에게
들이댄다는 소문과 함께,
그에 대한 복수의 기도가 온 마을에 퍼진다

S#엘비라와 재회

엘비라
열 여섯 살 열렬했던 나의 사랑,
행복으로 반짝거렸다.
빛이 가득해 홀로 있을 내 삶도
별과 같을 줄 알았으나
그가 없는 3년 동안 내 생은
그리움일 뿐이었다.
나의 사랑 어디 있는지.
아, 행복에 젖는 순간 얼마 남지 않았구나.

조반니 [엘비라와 마주친다]
오, 엘비라
어떻게 이 곳에,,

엘비라
돈 조반니!
오, 나의 사랑
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,
우리 다시 만날 날,
당신도 기다려왔죠?

조반니
엘비라, 나는 3년 전 우리 만난 곳에
우리의 모든 순간을 두고 왔소
이젠 너무 많은 것이 변했소

엘비라
천천히 시작하면 돼요
그 시절 우리, 너무나도 찬란해서
별빛 속에 두어도 땅 위와 하늘 아래 가장 밝게
빛났잖아요

조반니
철없을 적, 풋내기 사랑일 뿐이었소.
제발 나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요

엘비라 울며 조반니와 퇴장

S# 기마상이 있는 한적한 교회의 묘지

홀로 달빛을 바라보는 돈 조반니와
그 속에 기사장의 기마상도 눈에 띈다

조반니
하늘이 무정하기도 하지
어찌 운명의 사랑을 보여주곤
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가
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웃을 때
나는 홀로 울부짖는구나

기사장
깨달음이 있기 전에 비극이 오리라.

조반니
누구시오

기사장
죽은 자의 말을 두려워하라

조반니
기사장의 동상이 아닌가
[동상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]
'여기 나는 야비한 살인 행위에 대하여
하늘의 복수를 기다리고 있노라'
나의 살인은 어쩔 수 없었소.
그대 오늘 밤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네.

기사장
[고개를 끄덕인다]

S# 식탁이 차려진 돈 조반니의 저택 홀

문을 열어 둔 채 온 마을 사람들을 맞는다.
많은 무리 속에 보이는 돈나 안나와 돈 오타비오,
체를리나, 마제토 그리고 돈나 엘비라

조반니
(내 소문에 대한 오해를 풀 기회가 오겠지)
자, 아낌없이 풍성하게 차렸으니
다 같이 즐기세.

엘비라
[절망하여 등장한다]
나의 이 무겁고 오직 그대 향한 정결한 마음
당신으로부터 따뜻한 말 듣기 원하는 건 아닙니다.
나 그대 얼마나 사랑하는 지
증명할 마지막 기회
다시 한번 갖게 해주어요.

조반니
오 엘비라
하지만 우리는 3년 전에 끝났소
끝난 사랑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면
그대만 더 힘들어질 뿐이오

엘비라
당신 없는 삶은 평생 그리움 속에
파묻혀 있을 뿐이에요
운명의 사랑 같은 거, 존재하지 않아요
제발 현실을 돌아봐요

[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]

조반니
무슨 일이지?

[기사장 등장]

엘비라
아!
[뒤쪽으로 도망가 숨는다]

조반니
정말 왔군
최선을 다해 대접하겠소

기사장
하늘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
인간의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되느니라.
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 여기 왔노라

조반니

그렇다면 말해보시오.
무엇을 원하는지?

기사장

나는 그대를 향한 복수의 기도가 모여
하늘의 복수를 하러 왔다.
그대의 죄악 참회하라
그대의 최후는 멀지 않았다

조반니

죄악이라니, 무슨 말이오.
그 때의 살인은 실수였소
실수를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!

기사장

그대의 살인을 제한다 하더라도
희상 속에 낭비하는 삶 또한 죄악이니
참회하라

조반니

도대체 무엇이 죄악이란 말이오!
하늘에서 온 자마저 말도 안되는 소문에
나를 판단하는 것이란 말인가
참회할 것이 없소!

기사장

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니
그대에게 주어진 생명이 너무나 아깝도다
참회하라!

조반니

못하오!

기사장

네 최후의 시간이 바야흐로 다가왔다!
[칼을 뽑아들어 둔 조반니에게 다가간다]

조반니

이 무슨 무례한 헐박인가
아,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구나
내 운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

[기사장의 칼에 최후를 맞기 직전,
숨어있던 엘비라가 달려와 최후의 순간을
맞바꾼다]

엘비라

아.[피를흘리며 쓰러진다]

조반니

엘비라!

기사장

깨달음이 있기 전에 비극이 있고,
비극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으리라
[바람과 함께 사라진다]

조반니

오, 엘비라
엘비라..
[무릎을 꿇어 엘비라를 품에 안는다]

엘비라

조반니
온 마음 다해
사랑해요
[숨을 거둔다]

조반니

엘비라,,[울부짖으며]
나를 위한 희생이라니
아,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
내 곁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는
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
희상이었구나!
운명이라는 허상속에
진정한 사랑을 몰라보았구나!
기회가 있었음에도
몰라보았다
그대의 희생
이것이 비극이구나,
그대가 그랬던 것 처럼
그리움 속에 살겠소.
나의 사랑, 엘비라
부디 편히 가시오

한 여인의 희생으로

파아란 물결이 치유하듯

복수로 불 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덮으니

고요한 침묵 속에

비극의 울부짖음만이 온 마을을 울렸다.